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85

JCCT 2022-9-22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

Factor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receiving the National Pension

임안나*

Ahn Na, Lim*

요약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다.

주요어 : 국민연금 수급자, 경제활동 참여, 노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articipation of national pension beneficiaries in economic activities. Data from the 8th KREIs main survey were used for the study subjects,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91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0.0. As a result, gender, age, marital status, residential area, physical health status, and mental health status showed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 correlated with gender, age, marital status, physical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As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it was found that gender, age, education level, residential area, and physical health had an effect o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Key words : National Pension Recipient,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Old Man, KREIs

1. 서론

한국은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5%로 고령사회에 속하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은

준비가 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20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58.6%,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38.9%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실제로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면을 들고 있다[2]. 정부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월 2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했고,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인상,

*정회원, 광운대학교 글로벌교육센터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2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5일

Received: July 28, 2022 / Revised: August 22, 2022

Accepted: September 5, 2022

*Corresponding Author: lan22@kw.ac.kr

Dept. of Glocal Education Center, KwangWoon Univ, Korea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3]하였지만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감소 추세에 있던 노인빈곤율이 2016년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제도는 2020년 노인가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439,135가구로 가장 많았고[통계청],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이처럼 기초보장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공적연금이 노후의 중요한 소득이 되는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고 있다[6][7]. 그러나 2020년 국민연금 수급율은 평균 45%에 불과하고, 2021년 기준 국민연금 남녀 월평균 수급액은 64만원으로[통계청], 노후의 소득보장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불안정한 노후소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실제로 2020년 전기 고령 노인들의 경제활동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3% 이상이고,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46%에 이르고 있다[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60대를 대상으로 한 [8]의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57.2%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 경제활동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하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이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율은 남성 60%, 여성 34%를 보이고 있어서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9]의 연구에서도 국민연금 수급율이 남성은 67.6%, 여성은 32.4%로 나타나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10]. 평균금액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는 남성에게서만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9]. [11]의 연구에서도 남성의 55%, 여성의 13%만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연금액은 남성이 약 10만원 정도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이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수급권이 있기 때문이다. 성별이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8]은 남성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성별이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하여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것이다[12]. 그러나 [11]은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14.7%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34.1%를 차지하여 회원국 중 1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회원국 평균 15.7%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치이다[13].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차년도-5차년도까지 분석한 [5]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활동 노인의 평균연령은 2008년 70.3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76.3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 가능성은 그 사람이 어떤 연령대에 속하는가에 따라 유의하게 달라지는데 남녀 모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은 낮아졌다[11]. 이처럼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상대적으로 60대 노인이 정규직을 가진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다[10]. [14]도 연령의 증가는 미취업확률을 크게 하고 취업확률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령의 증가는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전기 고령 노인의 경우에 교육수준은 경제활동 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이 상대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5]. [14]는 빈곤자와 비빈곤자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교육수준은 비빈곤자의 취업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고 빈곤자의 취업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더 많다는 것이다[2]. [8]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11] 역시도 교육수준이 종사상의 지위와 직업 등과 관련이 있어서 상용직 근로자로 일할 확률이 높아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취업확률이 낮고 은퇴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에 차이와 영향이 있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10]은 배우자 유무는 취업여부, 빈곤 지위와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근로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8]. 이와는 다르게 배우자가 있을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9][14]도 있다. 배우자가 있으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취업확률은 높고 은퇴확률은 낮다는 것이다[11]. 또, 배우자 유무는 경제활동 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다[2].

거주지역도 노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이 전·후기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 단위 지역에 살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5]. [2]도 대도시에 살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상용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용직 근로자에서 일할 확률이 낮아서 서울이나 광역시 거주노인이 도에 사는 사람보다 취업확률이 낮기 때문이다[11]. 이처럼 거주지역은 일관되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많았다.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고령자의 은퇴사유로 본인의 건강악화가 1순위로 차지하고 있어서[15]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상태와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있으며[6][15], 전기 고령 노인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으나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5][2].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2019)의 개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연금 및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8차 본조사 시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전기 고령 노인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범위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민연금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 요인을 파악하고자 다중선행회귀분석을 하였다.

2. 측정 도구

1) 종속변수: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참여는 취업자는 “0”, 비취업자는 “1”로 더미코딩하였다.

2) 독립변수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조사 당시의 연령으로 65-69세는 “1”, 70-74세는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교육수준은 ①중졸이하, ②고졸, ③대졸이상의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있음은 “1”, 없음은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거주지역은 도를 Reference group으로 설정하여 더미코딩하였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는 ①매우좋지않다-⑤매우좋다 순서로 된 서열척도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919명이었다. 성별은 남성 592명(64.4%), 여성 327명(35.6%)이었고, 연령은 70-74세

467명(50.8%), 65-69세 452명(49.2%)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56명(71.4%)으로 없는 경우보다 많았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559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은 289명(31%), 대졸이상은 69명(7.5%)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76명(19.1%), 광역시 264명(28.7%), 도 479명(52.1%)으로 도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372명(40.5%)으로 가장 많았고, 좋다 287명(31.2%), 좋지않다 237명(25.8%), 매우좋지않았다 32명(3.4%), 매우좋다 13명(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상태는 좋다 409명(44.5%), 보통이다 372명(40.5%), 좋지않다 237명(89명(9.7%), 매우좋다 41명(4.5%), 매우좋지않다 7명(0.8%)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차이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t값이 -6.328,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10]의 결과와 같았다. 따라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어 성별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평균값은 .4159, 여성의 평균값은 .5803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연령의 t값은 -5.045, p값은 .000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 점수에 대하여 차이가 있었다. 65세-69세의 평균값은 .4159, 70세-74세의 평균값은 .5803으로 나타나 70세-74세가 65세-69보다 경제활동 참여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배우자 유무의 t값은 -4.251,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8]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배우자 없음의 평균값은 .6084, 배우자 있음은 .4558로 나타나 배우자 없음이 경제활동 참여점수가 더 높았다.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수급액 만족도 간에 경제활동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B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수준의 F는 .571, p값은 .5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5]의 결과와 같았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수준 세 집단 간에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 평균의 차이가 없었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N	Mean	SD	t/F(p)	Post Hoc
Sex	Male	592	.4159	.49343	-6.328***	
	Female	327	.5803	.49404		
Age	65-69	452	.4159	.49343	-5.045***	
	70-74	467	.5803	.49404		
Spouse	Yes	656	.4558	.49842	-4.251***	
	No	263	.6084	.48905		
Education	Middle School	559	.5027	.50044	.571	n/a
	High School	289	.4810	.50050		
	College+	69	.5507	.50106		
Residence	Seoul	176	.5284	.50062	24.208***	n/a
	Metropolitan	264	.6591	.47492		
	Do	479	.4008	.49058		
Physical Health	Not very good①	32	.8750	.33601	18.736***	①>⑤
	Not good②	237	.6751	.46933		
	Usually③	349	.4355	.49654		
	Good④	287	.4042	.49159		
	Very good⑤	13	.1538	.37553		
Mental Health	Not very good	7	.8571	.37796	7.463***	n/a
	Not good	89	.6742	.47134		
	Usually	372	.5134	.50049		
	Good	409	.4694	.49968		
	Very good	41	.2195	.41906		

p* < 0.1, p** < 0.05, p*** < 0.01

거주지역의 F는 24.208,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거주지역 집단 간에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건강상태의 F는 18.736,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scheffe test 결과 '매우 좋지 않다'와 '매우 좋다'간의 경제활동 참여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매우 좋지 않다'는 평균점수가 .8750, '매우 좋다'의 평균점수는 .1538로 나타나 '매우 좋지 않다'가 '매우 좋다'보다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신적 건강상태의 F는 7.463, p값은 .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정신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 점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 경제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key variables

	Sex	Age	Education	Spouse	Residence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Economic Activity
Sex	1							
Age	.013	1						
Education	.228***	.107**	1					
Spouse	.641***	.069*	.202***	1				
Residence	-.034	.007	.114**	.024	1			
Physical Health	.172***	.142***	.172***	.177***	-.024	1		
Mental Health	.118***	.125***	.113***	.125***	-.017	.544***	1	
Economic Activity	-.203***	-.164***	.006	-.138***	.206***	-.254***	-.160***	1

p* < 0.1, p** < 0.05, p*** < 0.01

표 3. 경제활동 참여 요인
 Table 3. Factors in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p)	TOL	VIF
	B	SE	β			
(Constant)	.894	.079		11.338		
Sex	-.191	.042	-.183	-4.537***	.570	1.755
Age	-.141	.031	-.141	-4.531***	.965	1.036
Education	.062	.025	.078	2.424*	.904	1.106
Spouse	.010	.045	.009	.228	.576	1.736
Residence	.378	.062	.189	6.128***	.980	1.021
Physical Health	-.117	.021	-.204	-5.505***	.677	1.478
Mental Health	-.012	.024	-.018	-.486	.700	1.429

Dependent Variable: Economic Activity

$F(p)$	22.593***
adj. R^2	.147
Durbin-Watson	1.843

p* < 0.1, p** < 0.05, p*** < 0.01

Reference group: 성별*여성, 연령*70-74세, 배우자유무*없음, 거주지역*도, 경제활동 참여*비취업자

활동 참여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별과 배우자 간은 $r=.641$, $p=.000$ 으로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육과 심리적 건강상태 간은 $r=.113$, $p=.001$ 로 가장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신체적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참여 간은 $r=-.254$, $p=.000$ 으로 가장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와 경제활동 참여 간의 $r=-.138$, $p=.000$ 으로 가장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경제활동 참여 영향 요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입력방법은 입력(Enter)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F=22.593$ ($p<.000$)으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였고, adj. R^2 값은 .147로 14.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의하면 여성(.894)이 남성(.703)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11]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8][12]와는 상반된다. 연령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의하면 70세-74세의 집단(.894)이 65세-69세의 집단(.753)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11][2], [5][10]. [14]의 연구와 다르게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다.

교육수준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여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도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5][2][8][11]의 결과와 같으며 빈곤자의 경우와도 일치하지만 빈곤자의 결과와는 상반된다[전승훈 조덕호].

배우자 유무는 유의확률이 .05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 유무가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8][9][14][11][2]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5][8][2][11]의 연구와 일치한다.

신체적 건강상태는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으며 심리적 건강상태는 p값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6][15][2]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노인 중 비교적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 고령 노인인 65세-74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t검정과 ANOVA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경제활동 참여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에 거주할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이 경제활동 참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의 빈곤율보다 높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이 높은 경우에 경제활동 참여가 많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연금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연령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참여가 많게 나타났는데 대도시 거주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심층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기관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은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경제적 필요에 의한 상황일 것이므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통계청 kostat.go.kr
- [2] S. E. Le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Poor Elderly",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Vol. 17, No. 3, pp.39-58, 2013.
- [3] H. S. Jung,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nd the Systematic Redesign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Pension Forum*, Vol. 85, pp. 19-30, 2022.
- [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5/2017070500249.html
- [5] H. J. Choi, "A Study on the Siz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Poor Elders Excluded from the Public Assista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6, No. 2, pp. 237-259, 2004.
- [6] J. E. Yoon & H. J. Jun, "Economic Activity Status and Mental Health among Middle and Older Adults: The mediating effects of income level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2, 743-759, 2009.
- [7] H. S. Choi & Y. K. Ryu, "A Study on the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of the Old-Age Pover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3, No 3, pp. 145-160, 2003.
- [8] H. C. Kwon & J. W.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the Labor of the Old aged",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Vol. 33, No. 4, pp. 1-21, 2017. DOI: 10.18859/ssrr.2017.11.33.4.1
- [9] H. J.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Adult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73, No. 3, pp. 193-212, 2018.
- [10] K. Y. Lee, W. H. Song, J. S. Kang, J. H. Lee & Y. K. Cho, "Study on Economic Activities of Old People in Aging Society",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1, No. 1, pp. 147-162, 2010.

- [11]C. S. Park & K. S. Chol, “A Study on the Effects of National Pension on Employment and Retirement”,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28, No. 3, pp. 1-16, 2018.
- [12]J. H. Kum,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of the Women’s Labor Market’ *Korea Labor Institute*, 2002.
- [1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416>
- [14]S. H. Jeon & D. H. Cho, “Labor Supply and Pover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Vol. 19, No. 2, pp. 71-93, 2017.
- [15]E. K. Lee, “Impact of Health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Older Koreans”,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30, No. 3, pp. 183-214, 2014.
- [16]K. Y. Song, “The Effects of Emotional & Social Preparation for Aging on Successful Aging &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4, pp. 47-56, November 30, 2018. DOI: 10.17703/JCCT.2018.4.4.47
- [17]A. N. Lim, “A Comparative Study of Men and Women on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Vol. 10, No. 3, pp. 113-121, 2021. DOI: 10.7236/IJASC.2021.10.3.113
- [18]C. O. Ja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Job Participation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213-219, 2022. DOI: 10.17703/JCCT.2021.7.2.22
- [19]C. O. Jang, “Analysis of the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Job Participation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213-219, 2022. DOI: 10.17703/IJACT.2022.10.2.213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